

문화방송노보

무단협 1771일째
지명파업 589일째

발행인 김연국
편집인 허유신
편집 김사이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11월 21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다시, 시작이다 〈시선집중〉 77일 만에 방송 재개



MBC 라디오가 긴 침묵을 깨고 돌아왔다. 지난 9월 4일 총파업 돌입에 따라 80일 가까이 음악방송으로 대체됐던 <시선집중>이 새롭게 부활한 것이다. 김장겸이 해임된 지 일주일,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잠정 중단한 지 닷새만이다.

길고 복잡한 얘기로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지키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한 가장 큰 책임은 저희 MBC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1월 20일 <시선집중> 오프닝 中

새롭게 <시선집중>의 진행을 맡은 변창립 아나운서는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로 첫 방송의 문을 열었다. 1984년에 입사한 아나운서국 최선임인 변 아나운서는 2012년 파업이후 5년 동안 방송에서 배제돼 왔다. 특히 아나운서국 ‘참사’의 장본인, 신동호 국장을 대체한 진행이라 그 의미가 남달랐다. <시선집중>의 새로운 시작은 부당전보 · 징계로 점철된

아나운서국, 블랙리스트로 출연자들이 쫓겨났던 라디오국 구성원 모두에게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새로운 <시선집중> 첫 아이টে은 “세월호”

바뀐 건 진행자뿐이 아니었다.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다. 70일 넘는 파업 투쟁 끝에 재개된 <시선집중> 첫 출연지는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었다. 우리 조합원들은 지난 9월 초 ‘돌마고’ 집회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망가진 언론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꾸짖던 유 위원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미수습자 발인을 마치고 화장을 위해 수원 연화장으로 향하던 유 위원장은 전화 연결에서 “파업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본연의 MBC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작하는 모습에 정말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 현장에서는 아픈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역할도 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3부 시작과 함께 이어진 ‘60초 풍경’ 코너

에서도 세월호 3주기 추모앨범 ‘미안’에 수록된 곡이 전파를 탔다.

그동안 ‘세월호’는 망가진 MBC 전 부문을 관통하는 ‘금기어’였다. <시선집중>은 ‘세월호’라는 금기를 새 방송의 첫 아이টে으로 선정함으로써 그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MBC의 치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자 한 것이다.

명가의 부활, 재건의 시작

새로운 <시선집중>은 국민들에게 ‘MBC 정상화’를 선언했다. 청취자들은 또 <시선집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을 염원했다. 첫 걸음은 땀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뉴스를 비롯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도 한 줌의 부역자들이 자리에서 버티며 ‘방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 남은 걸림돌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껌데기만 남은 보직을 내려놓고 국민의 명령에 응해야 할 때다.

‘적폐뉴스’ 거부한다



오후 1시 40분이 되면 보도부문 조합원들은 방송센터 7층 보도국 사무실에 모두 모인다. 보도국장, 센터장, 보직부장 등 김장겸 뉴스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향해 피켓팅을 하기 위해서다. 보도부문은 파업 중단 후 보도 참사 주범들에게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이 내리는 업무 지시, 인사 발령 역시 모두 거부하는 중이다. 뉴스 정상화를 위한 작업도 한창이다. 그 동안의 보도 참사를 낱알이 기록하는 백서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정상화된 <뉴스데스크>를 대비한 특별취재팀도 꾸려졌다.

<PD수첩> 재개 준비... 조창호 두문불출



시사고양 프로그램은 속속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외주 프로그램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고 <PD수첩>과 <MBC스페셜>도 시청자들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배지로 쫓겨났던 PD들까지 참여해 12월 중순 방송을 목표로 제작에 돌입했다. 아이템 검열과 취재 방해로 일삼던 조창호 국장과는 업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조창호 국장은 파업 중단 이후 자신의 방에 따로 경비 인력까지 배치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간판 얼굴들 비로소 한 자리에

만나면 좋은 친구, MBC의 얼굴이었던 대표 아나운서들이 비로소 한 자리에 모였다. 부당전보로 뿔뿔이 흩어진 아나운서들만 10여 명이다. 부당한 인사명령은 무시하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다. <시



선집중> <출발 비디오 여행> <생방송 오늘 저녁> 등 일부 프로그램 제작에도 합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순 없다. 비상대책위원회인 ‘앞날마로세움위원회’를 통해 MBC 재건에 앞장선다. 보도 및 시사 분야의 불공정 프로그램 참여도 정상화될 때까지 거부한다. 신동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지속하는 등 다시는 오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파업 이후 진행자 없이 음악만 송출했던 라디오. 84일만인 어제부터 원래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다. 표준FM과 FM4U 모두 PD, 작가, 아나운서까지 돌아와 정규 방송을 재개했다. <굿모닝FM 노홍철입니다>의 진행자 노홍철 씨는 어제 방송에서 “제자리로 돌아온 멋진 사람들이 오늘 따라 귀하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는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쓴 현수막도 붙었다.

경영·영미 부문 정상화 빠르게 진행

가장 빠르게 정상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문 중 하나다. 대부분의 기존 부역 수뇌부들이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로 자리만 지키고 있다. 특히 홍보국의 경우 실무자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며 새로운 국장이 올 때 까지 지시를 받거나 업무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김수정 국장에게 통보해 “알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경영 직군은 급여 정산 등 밀린 업무 처리로 가장 바쁜 곳이기도 하다. 물론 투쟁을 멈춘 것은 아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당 인사 명령에는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새



로운 계약이나 행사도 새 경영진이 올 때까지 미루고 있다. 영상·미술 부문도 국장이 휴가 등 기본적인 행정 처리만 하고 모든 업무를 실무자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역시 정상화될 때까지 보도·시사 부문의 불공정 프로그램들에 대한 영상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술 부문 한마음으로 제작 거부 동참



파업 전후로 10명 중 9명의 부서장이 보직사퇴를 한 기술 부문도 한 마음으로 제작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도 부문은 파업 이후에도 <뉴스데스크>를 제외하고 모두 녹화뉴스로 대체되고 있다. <PD수첩>이나 <백분토론> 등에 대한 기술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스포츠국 적폐 인사들의 이권 연루 의혹이 있는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 중계도 거부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술 부문에서 일어난 부당 노동행위 사례에 대해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다만 <신동호의 시선집중>이 <변창립의 시선집중>으로 바뀌는데에는 힘을 보탰다.

‘김장겸 슬로건’ 즉각 폐기



김장겸 사장 취임 후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붙었던 '품격 있는 젊은 방송' 태그 김장겸 사장이 취임하며 회사의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가 만든 MBC는 품격도 없고 젊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편성부문 조합원들은 파업 중단 다음날인 16일부터 태그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뉴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태그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이 밥이 그리웠다”



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던 식당도 어제부터 정상 운영됐다. 양식과 한식, 간식까지 제 시간에 모두 제공된다. 정상 운영 첫날, 구내식당 양식이 그리웠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한다. 복귀 직후에는 파견직 신분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직원들과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다. 31명의 근무자 중 파견직이 절반이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업 기간 동안 비 노조원들이 뒤에서 커피를 타주기도 하며 응원과 격려를 해준 덕에 금세 화기에 애해질 수 있었다. 임형욱 주방장은 “밖에서 음식을 사먹으면 더부룩한 느낌을 받기 쉽다”며 “동료들이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식당 직원들은 건강한 음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차기 사장 검증, 종사자들도 참여해야

김장겸 해임이 MBC 적폐 청산의 서막이었다면 MBC 재건을 위한 첫 주춧돌은 신임사장 선임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16일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확정했다. 사장 공모는 어제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방문진은 30일 정기 이사회에서 3명의 최종 후보를 압축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들은 다음달 1일 공개 정책설명회를 통해 MBC 경영 계획과 공영방송 철학 등을 밝혀야 하며 7일 최종 면접을 거쳐 차기 사장이 결정된다. 신임 사장은 김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20년 2월까지 재직하게 된다.

선임 기준 공개...철저 검증해야

방문진은 차기 사장 선임 기준 8가지를 공개 천명했다. 1)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방송 철학, 2) MBC 재건을 위한 청사진 : 해고자 복직 · 적폐 청산 · 분열된 조직의 화합 및 결속, 3) 정치적 중립과 방송 독립 :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4) 보도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 : 취재 및 제작의 내적 자율성 확보 등이다.

특히 이번 사장은 지난 9년 동안 정치적 독립성이 침해되고 폐허가 된 MBC를 바로 세울 임무를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 면접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무엇보다 방문진은 오로지 시청자와 국민을 보고 차기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단호히 배제하고, 오직 시청자들의 뜻에 따라, 방송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적 권한을 가진 방문진 이사회가 독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책 설명회 공개...시민 참여 확대

최종 후보 3인은 다음달 1일 방청객을 모아 놓고 자신의 정책을 공개 설명한다. 일반 시민들도 MBC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장 후보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들을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남길 수 있고 이는 최종 면접에 반영될 예정이다. MBC 사장 선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질의를 받는 것은 MBC 역사상 처음이다.

후보 검증 기회, MBC 종사자에게도 보장돼야

당연히 MBC 방송 종사자들에게도 검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미 2012년 170일 파업을 통해 사법부는 “공정방송 의무는 방송 사업자 뿐 아니라 방송 종사자들에게도 부여된다”고 밝혔다. 새 경영진과 함께 공영방송 MBC를 만들어갈 주체는 방송 종사자들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조만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장 후보들에 대한 질의를 공모할 예정이다. 여기서 취합된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설명회에 참여해 사장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를 던지고 정책을 검증할 방침이다. MBC 사장 선임에 시민 참여가 확대된 만큼 MBC 종사자들의 참여 기회도 공식적으로 부여해줄 것을 방문진에 요구한다.

사장 선임절차

11/20~ 27 (방문진)

응모서류 접수

11/30 14:00 (제9차 임시이사회)

최종후보자 3인 선정

12/1 11:00 (MBC 상암스튜디오)

3인후보자 공개 정책설명회

12/7 14:00 (제21차 정기이사회)

최종면접 및 내정자 선임

“MBC 사장, 국민이 직접 뽑아야” 이용마 기자 ‘국민대리인단’ 제안은?

현행 방송관계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영구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지난 9년 MBC 파국의 역사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가운데 암 투병 중인 해직기자 이용마 조합원이 제안했던 ‘국민대리인단’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국민대리인단’의 핵심은 공영방송 주인인 국민에게 인사권을 돌려줘, 국민이 MBC 사장을 직접 뽑는다는 것이다. 국민대리인단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비례 등을 따져 무작위로 추첨해 뽑는다. 여야 대표들이 이렇게 뽑힌 사

람들을 사전 면접을 통해 일부 걸러낼 수 있다. 여야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해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면 이를 지켜본 국민 대리인단이 투표를 해서 사장을 뽑는 방식이다.

이용마 조합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될 당시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판결을 일반인에게 맡길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 배심원단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은 거의 대부분 일치했다. 우려와 달리 일반 배심원단의 판단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으며, 민의가 재판에 반영되면서 사법 불신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일조했다.

비슷한 사례도 있다. 독일 공영방송의 경우 사장 선임권을 방송위원회가 갖는데, 방송위원회는 정당대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다양한 집단 대표 7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각계 각층의 위원이 많다보니 부적절한 로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치권이 개입하기도 어렵다.

당장 시급한 차기 사장 선임은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이 기회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영구히 보장하고 시청자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MBC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MBC 재건의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다. 공영방송이 권력에 휘둘리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회는 방송관계법 개정에서 국민의 뜻을 철저히 담아야 할 것이다.

절박한 해고자 복직, 대법원 2년 반 넘게 계류



MBC 정상화를 위해 가장 절박한 과제는 단연코 해고자 복직이다. 하지만 최승호, 박성제, 정영하, 강지웅, 박성호, 이용마 등 6명의 해직자 복직 문제는 대법원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2012년 파업 지도부에 대한 업무방해 소송, 노조에 제기된 195억원의 손해배상소송 등도 마찬가지다. 2심 판결들이 나온 게 각각 2015년 4월, 5월, 6월이었는데도 대법원은 2

년 반이 넘도록 확정 판결에 손을 놓고 있다.

이른바 ‘빅3’ 재판에 대해 현재까지 이뤄진 1심과 2심 총 6번의 판결에서 법원은 ‘공정방송의무는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방송 종사자 모두에게 함께 부여된 것’이라며 ‘공정방송 실현 여부는 언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해고 처분은 무효, 업무방해는 무죄이며, 손해배상

은 기각됐다.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기치로 내세운 170일 파업이 정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시계만 유독 2년 반 넘게 멈춰 있다. 1,2심이 엇갈린 적도 없고,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 내부의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대법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최종판단을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학자들의 논문도 많이 나와서 2년 넘게 끝 사안은 아니”라며 “시간은 오래 끌면서 무엇 하나 진행하는 게 없다”고 어리둥절해한다. 사건 자체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이 사건을 쥐고 3년째 뒷짐 진 사이, MBC는 처참하게 망가져갔다. 김재철-안광환-김장겸의 적폐 경영진은 확정 판결이 안 나왔다는 미명하에 해직자 복직은커녕 노조원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칼날을 마구 휘둘러왔다. 직무유기로 적폐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대법원은 오로지 법에 따라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고자 복직과 공정방송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일은, 공영방송 몰락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단절이자 MBC 재건을 위한 진정한 토대이다.

입원 중 승리 소식 접한 이용마 기자

“이것 하나 이뤄내는데 9년이 걸렸네”

총파업 승리 소식을 접한 이용마 기자의 첫 소감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고, 힘겨운 항암 치료 중에도 표정은 밝았다. 해직된 지 2082일 만의 일이었다.

총파업 승리와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난 15일 오후 MBC본부 김연국 위원장이 맨 처음 찾아간 곳은 입원중인 이용마 기자의 병실이었다. 그 누구보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앞장서 외쳤던 그였다. 해직을 당해도, 암 진단을 받아도, 변함없이 강직했던 그의 외침은 우리를 감싼 커다란 울림이 돼 주었다. 그런 그가 ‘김장겸 해임-우리가 이겼다’는 총파업 승리 낭보를 받아들고 모처럼 활짝 웃었다. 9년의 저항, 5년의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용마 기자는 “‘국민대리인단’을 통해 MBC 사장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장시간 힘주어 강조했다.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되고 휘둘렸던 MBC의 역

사가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 대한 당부이기도 했다. ‘국민대리인단’에 대한 그의 오래된 고민은 최근 발간된 그의 저서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에 상세히 담겨있다.

최근 ‘안중필 자유언론상’ 특별상을 받은 이용마 기자에게 또 다른 수상 소식도 전해졌다. 제5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리영희상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리영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심사위원회가 이용마 기자를 수상자로 선택한 이유는 이렇다. “이용마 기자는 자신의 온몸을 사르면서까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몸 바쳤다.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투쟁 현장을 지킴으로써 방송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 됐다”. 시상식은 12월 1일 저녁 6시 30분, 서



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다. 상은 지난 2012년 그와 함께 파업을 이끌었던 정영하 전 위원장이 대신 받을 예정이다.

병실을 나서는 김 위원장에게 이용마 기자는 “당분간 조합원들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

전국이 흔들... MBC만 고요

재난방송 포기 또 한번의 보도참사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강진에 급기야 수능 시험까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15일, MBC 보도국은 언론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쥐죽은 듯 고요했다. 이 날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재난방송이 11번 채널에서 실종됐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포항 시민은 물론 전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운 재난 상황에 MBC는 제대로 된 지진 정보도, 피해 소식도, 대처 정보도 전달하지 못했다.

속보 자막도 지진 특보도 없었다

지진 발생 1분 후인 오후 2시 30분, KBS와 MBC에서는 자동촬영자막으로 화면 하단에 지진조기경보가 노출됐다. SBS는 거의 같은 시각인 오후 2시 30분 “경북 포항 북구 규모 5.5 지진 발생”이라는 속보 복대 자막을 내보냈고, 2분 후에는 “부산 해운대 등에서도 강한 진동 감지”라는 추가 복대 자막을 노출시켰다. KBS는 지진 발생 4분 후인 오후 2시 33분 “오늘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점서 규모 5.5 지진 발생”이라는 속보 복대 자막을 내보냈고, 곧이어 2시 40분부터는 정규방송을 끊고 뉴스 특보 체제로 전환했다. MBC에선 지진 속보 자막도 특보도 없이 창작만화<프리파라2>와 <텔레몬스터>가 방송됐다.

‘5.5냐 5.4냐’... 기본 재난 정보도 우왕좌왕

같은 시각 MBC 보도국에서는 편집1센터장과 주간뉴스부장이 지진 규모를 두고 5.5인지 5.4인지, 아니면 5.5와 5.4의 지진이 각각 따로 발생한 것인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 재난 방송 체제로 전환할지 말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5.5와 5.4의 ‘쑹쑹한 경계’에서 우왕좌

왕하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진이 발생한지 무려 1시간 7분이 지난 오후 3시 36분에서야 “경북 포항서 규모 5.4 강진 발생”이라는 속보(?) 복대 자막을 뒤늦게 내보냈다. 오후 3시 9분 3.6의 여진이 추가로 발생했는데도 그보다 27분이나 늦은 시점에 5.4 강진 발생 소식을 속보랍시고 내보낸 것이다.

재난 상황에도 녹화 뉴스... 일부 조기퇴근

오후 5시부터 방송되는 <이브닝뉴스>는 재난 상황에서도 녹화 방송을 강행했다. 이날 <이브닝뉴스> 첫 리포트는 지진이 아니라 아침 6시 15분 뉴욕에서 송고된 ‘유엔 북 인권 규탄 결의안 채택’이었다. 타사는 지진 특보를 진행 중이었지만 특보도 안한 MBC는 이브닝뉴스에서 마저도 지진 소식을 6번째 순서에 그것도 단신으로 짧게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도국의 일부 센터장과 보직 부장들은 일찌감치 집을 싸서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는 ‘단신’ 처리

재난보도를 포기한 무책임한 보도 행태는 결국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사태마저 ‘단신’ 처리하는 보도 참사로 이어졌다. SBS 등 다른 방송사들은 교육부총리 발표를 중계차로 연결하고, 리포트와 기자 출연 등으로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사건사고만도 못한 뉴스 말미 ‘단신’으로 나갔다. 지진이 나든, 재난 상황이든, 수능이 연기되든 ‘별 관심이 없다’는 보도 행태였다. 대비도 없었고 대처도 못했다는 건, 뉴스 마지막 날씨 정보에서 기상캐스터가 ‘수능일인 내일 한파가 예상된다’는 소식을 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방송 사고를

넘어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보도 참사다.

현장 취재 없고, 재난방송 매뉴얼도 어겨

SBS와 JTBC는 15일 지진이 발생하자 서울에서 취재 기자와 중계팀을 급파해 메인 뉴스에 신속히 중계를 물렸다. KBS도 포항주재 기자가 한동대 캠퍼스에서 중계차를 탔다. 하지만 당일 MBC 뉴스에는 가장 중요한 현장 리포트가 없었다. 포항MBC가 제작거부에 동참해 서울로 송고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이날 오후 보도국 사무실에 편집1센터장과 뉴스데스크 편집부장, 전국부장, 사회2부장, 정보과학부장 등이 모두 있었는데 이들은 재난 보도를 위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MBC 사규 재난방송매뉴얼에 따르면 규모 3.0 이상의 내륙지진 발생 시 보도담당국장은 TV편성담당국장, 라디오 담당국장과 협의해 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도담당국장에게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뉴스편집담당부서장의 판단 하에 선조치 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날 MBC 보도국장과 뉴스편집부장은 사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난 상황에서마저 뉴스를 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부역자들은 MBC 보도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보직자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 그것이 MBC와 시청자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15일 오후 2시 40분 방송 3사 화면



‘반값 등록금’ 보도 통제 … MBC는 충실히 따랐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을 장악한 이명박 정권의 구체적인 ‘보도 지침’ 사례가 또 드러났다. 지난 2011년 국정원은 MBC 등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에 대한 자체를 요청했다. 해당 방송사 고위 간부들은 이를 적극 수용해, 보도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2011년 6월 9일자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방송)’라는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2국은 “반값 등록금 시위와 관련해 6월8일 KBS 등 방송 5사 간부진을 대상으로 자극·선정적 보도를 자체토록 협조 요청했다”고 적혀 있다. 이때는 이명박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는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와 시위가 확산되던 시기였다. 공약 이행이 난항을 겪자,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방송사들을 압박한 것이다.

문건에는 국정원의 지시에 대한 방송사 간부들의 실명 멘트도 기록돼 있다. 당시 각 방송사의 보도국장과 사회부장들이다. 이름을 지운 흔적이 있지만 문건에는 ‘MBC OOO 보도국장’ 명의의 발언도 적혀 있다. 당시 보도국장은 문철호 전 부산MBC 사장이다. 타사 간부들에 비해 문철호 전 국장의 발언은 단연 압권(?)이다.

문철호, 국정원 지침 적극 수행



문 전 국장은 “대학생들이 전면에서 나서고 있으나 중북 좌파 야당 등이 연대, 내년 총선 대선 정국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확실하다”며 <뉴스데스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예의 주시해왔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또 “금일(6월 8일)은 (나) 자신도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 자극적인 장면은 철저히 배제하고 중북 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뉴스데스크>는 리포트 두 꼭지를 방송했다. 그러나 내용은 ‘등록금 인하, 정치 쟁점화하고, ‘반값 등록금 실제로 가능한가’라는 꼭지에서 공약 이행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몰아갔다. 이날을 전후한 7일과 9일에는 아침 편집회의에 발제된 ‘반값 등록금’ 리포트가 모두 취소됐다.

문 전 국장은 단순히 ‘보도 자체’ 방침을 밝힌



타사 보도국 간부들의 발언 수위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충성 맹세’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 여당에서는 금번 시위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속단치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까지 덧붙였다.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국정원의 꼬나풀 노릇을 자임한 것이다. 보도국장 재직 시절, 후배들에게 어색하리만치 살갑게 굴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MBC 기자들이 많다. 면전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흘리면서, 뒤로는 국정원과 손잡고 뉴스를 망가뜨린 것이다.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이자, 방송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조합은 최근 ‘MBC 방송 장악 백서’ 발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보도 지침 역시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관련자들이 쫓겨나도록 할 것이다.

연대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 ‘고대영 퇴진’ KBS 투쟁에 끝까지 연대

매주 금요일 저녁 열렸던 ‘돌마고’ 집회가 ‘돌리고’로 거듭났다. ‘돌아와요 마봉춘 고봉순’이 ‘돌아와요 리셋 고봉순’으로 바뀐 것. KBS 투쟁에 집중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KBS는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이 버티고 있어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돌리고’는 이겼으니 마봉춘은 빠지겠다는 뜻이 아니다. KBS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마봉춘이 함께하겠다는 연대의 약속이다.

지난 17일 열린 ‘돌리고’ 집회엔 마봉춘도 변함없이 함께했다. 김연국 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그 동안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행복했다”며 “MBC가 먼저 방송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함께 승리하는 날이 곧 올 걸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MBC본부 노조는 그동안 우리가 집회 때마다 깔고 앉았던 방석을 KBS 동지들에게 선물했다(사진). 김민식 PD는 “김장겸 해임안이 결의되던 그날 모든 조합원들이 깔고 앉았던 방석이 있다”며 “사장 쫓아낸 방석, 이 기운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다”고 말해 KBS 동지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돌리고 집회는 변함없이 매주 금요일 저녁 광화문 시청 부근에서 개최된다. KBS 동지들만의 외로운 투쟁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노조 집행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돌리고 집회에 참석한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완전한 정상화 그날까지 우리는 KBS 세노조와 함께 할 것이다.



이진숙 퇴진 끝장 투쟁

대전지부, 지역방송 정상화 위해 전면 파업 유지



김장겸 해임 이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와 전국 16개 지부가 파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아직 '전면 파업' 투쟁을 접지 않은 지역이 딱 한 곳 있다. 바로 대전지부다. '중동뉴스' 이진숙 사장이 물러나기 전까지, 절대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일에는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 0일, 리셋 선언'을 했다. 대전지부는 총파업 이전인 지난 5월부터 앞장서서 이진숙 퇴진을 요구해 온 곳이다.

어제 대전지부에서 열린 총파업 78일차 집회에는 전국 지부장들이 총집결해 힘을 보탤

다. 이진숙이 어제부터 사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 '셀프 감금'을 자처했다는 소식에, 김연국 위원장은 "이진숙은 완전히 고립됐고,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제 이진숙은 잊고, 앞으로 대전MBC 지역 시청자들과 국민에게 어떤 방송으로 자리매김할지 그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사 사장 자리를 한달 부역자들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킨 현 체제를 반드시 끝내고, 지역MBC를 재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제도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각 지역 지부장들의 응원 발언도 이어졌다.

김구한 안동지부장은 "안동이나 대전이나 낙하산 사장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서, "지역성 고민 대신 자나 깨나 서울 생각, 공정방송은 뒷전, 눈에 보이는 경영 성과 포장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영 춘천지부장은 "김원배 이사에 대한 대전지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쟁 덕에 사장 해임이 가속화된 것"이라면서 "이진숙, 송재우, 심원택 이런 지역사 사장들을 빨리 내보내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따뜻한 격려에 화답하듯, 이한신 대전지부장은 "대전MBC 전체 보직자 13명 중에 단 1명을 제외한 12명이 현재까지 보직을 사퇴했거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진숙이 물러나든, 쫓겨나든, 사장으로서의 수명이 끝났다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인 셈이다. 이한신 지부장은 "대전이 전면파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시청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 때문"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조합원 한분 한분이 시청자들의 뜻을 잊지 말고 대전MBC 재건을 위한 시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지부는 이번 주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이진숙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서 이진숙 자택 앞에서도 집회를 열어 '끝장 투쟁'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성명

MBC 사장 선임 개혁, 16개 지역사도 예외 아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방문진은 사장 선임 기준 8가지 가운데 하나로 "MBC 지역 계열사 및 자회사와의 상생 방안"을 꼽았다. 지난 9년 지역 MBC 사장 자리는 정권에 부역한 대가로 무능한 부역자들이 자리를 나눠 갖는 전리품으로 전락했다. 그러는 사이 지역 MBC의 제작환경은 계속 악화됐고, 지역 MBC 종사자들의 사기는 추락했으며, 지역 시청자들의 권리는 침해됐다. 따라서 우리는 16개 지역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역 시청자들에게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MBC 새 사장의 시대적 책무라고 판단한다.

우선은 김재철, 안광환, 김장겸 체제에 부역한 대가로 지역 MBC 사장 자리를 얻어낸 현 사장들을 일소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역 MBC 사장 선임 절차 역시 투명하게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 MBC 사장 선임은 형식적으로는 공모였지만, 누가 응모했는지, 후보자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시청자

들은 물론 종사자들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밀실에서 대주주인 MBC 이사회가 검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다.

지역MBC 사장 선임 절차 역시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 시청자와 종사자들에게 후보자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후보자들은 지역MBC 발전을 위한 어떤 전망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시청자와 종사자들이 직접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는 방문진이 새 사장 후보자 심사에서 지역MBC에 대한 인식과 정책, 사장 선임 개혁방안도 면밀히 따져 볼 것을 요구한다. 16개 지역사를 포함한 MBC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MBC 사장 선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2017년 11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